

카다피 퇴진 거부 “싸우다 죽을 것”

친정부 세력 ‘피의 작전’에 희생자 1000명說 UN·이슬람기구 비난...내무 사퇴 민주화 동참

리비아의 국가원수 무아마르 카다피는 22일 권좌에서 물러나라는 시위대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자신은 시위대에 싸우다가 ‘순교자’로서 죽을 것이라고 밝혔다.

카다피는 이날 국영TV로 생중계된 연설에서 “무아마르 카다피는 혁명의 지도자이고, 무아마르 카다피는 공식적인 자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물러날 수도 없다. 무아마르 카다피는 영원한 혁명의 지도자”라고 소리친 뒤 “이곳은 내 조국, 바로 내 조국이고, 나는 내 조상의 땅에서 ‘순교자’로 죽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비아 동부 항구도시 토브룩의 중앙 광장을 장악한 반정부 시위대가 한 건물 위에 올라가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원수의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갈색으로 된 긴 옷차림에 터번을 쓴 카다피는 “나의 마지막 피 한 방울이 남을 때까지 싸울 것”이라며 시위대에 대한 강경 진압의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카다피의 이 같은 선전포고에 앞서, 친정부 세력은 수도 트리폴리 등지에서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피의 작전’을 이어갔다.

트리폴리의 목격자들은 지난 밤 전투가 시내 곳곳을 폭격하고 군용 헬리콥터도 비행을 하며 시가지지를 향해 발포해 시위대를 두려움에 떨게 했다고 전했다.

독일 dpa 통신은 목격자들의 말을 인용, 트리폴리에서 희생된 사람 수가 15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이번 반정부 시위의 중심 도시인 벤가

지에서는 3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고 보도했다.

심지어,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조직인 ‘아랍공동체’(COMAI)는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리비아 보안군의 폭격으로 숨진 사람 수가 1000명 가량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시위대는 리비아 동부 일대를 장악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유혈사태가 벌어졌던 리비아 동부 항구도시 토브룩 시 민들은 22일 서방 주요 매체로는 처음으로 리비아에 들어간 로이터 취재진에게 도시가 시민들의 손으로 넘어온 지 사흘째 됐다고 말했다.

카다피에 반기를 드는 고위 관료와 외국 주재 리비아 대사, 외교관들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아부델 파타흐 유네스 리비아 내무장관은 이날 정부에서 이탈하겠다고 군이 국민과 국민의 정당할 요구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유엔에 주재하는 이브라힘 다바시 부대사는 21일 자국 대사관 직원 10여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카다피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국제사회가 리비아 사태에 개입해줄 것을 촉구했다.

57개국으로 구성된 세계 최대의 무슬림 조직인 이슬람회의기구(OIC)도 이날 리비아 당국의 과도한 공권력 사용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이날 반정부 시위에 대한 무아마르 카다피 정부의 강경 진압을 규탄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안보리는 이날 리비아 사태에 대한 긴급회의를 가진 뒤 15개 이사국이 모두 동의한 언론 발표문에서 리비아 사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폭력적 진압을 규탄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비난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리비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적인 탄압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유엔(UN) 회원국들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뉴질랜드 한국 연수생 2명 실종

지진 사망자 75명·실종자 최소 300명

뉴질랜드 ‘국가 비상사태’ 선포

뉴질랜드 남섬 크라이스트처치에서 발생한 규모 6.3의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75명, 실종자는 최소 300명으로 늘어났다고 현지 관리들이 밝혔다. 어학원 건물 붕괴로 한국인 어학연수생 2명도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뉴질랜드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사망자 수색과 실종자 구조 및 복구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존 키 뉴질랜드 총리는 23일 기자회견에서 지진 사망자가 경찰이 전날 집계한 65명보다 10명 늘어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러셀 김슨 경찰청장은 그러나 실제 사망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현지

경찰서에 설치된 임시 영안실에서 30명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80년만에 최악으로 기록된 이번 지진으로 인한 실종자는 300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으나 이 또한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크라이스트처치의 한 어학원 건물 이 지진으로 붕괴됐으며, 이곳에서 수업을 받던 한국인 유모(25)씨와 유씨의 여동생(21)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우리 시간으로 이날 오전 8시께 뉴질랜드 대사관에 접수됐다. 이들 남매는 지난 1월15일 어학 연수를 위해 뉴질랜드에 입국했으며 각각 다른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현재 건물 붕괴 현장에서는 100여명이 구조된 상태며, 어학원에서는 실종된 유씨 남매 외에도 한국인 어학연수생 5~6명이 수업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돼 추가 실종자가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참사 현장에서는 현재 400여명의 구조대원들이 탐지견과 크레인, 불도저 등의 중장비를 총동원해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호주와 싱가포르, 대만, 미국, 영국 등의 요원들도 구조대원에 합류했다.

한편 지진 직후 폐쇄됐던 크라이스트처치 공항은 이날부터 국내선에 한해 운항을 재개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관광객들을 위해 군 수송기도 동원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 한반도 안전은

“직접 영향 없지만 안전지대 아냐”

뉴질랜드에서 강진이 발생해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으나 한반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진단됐다.

기상청은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발생한 지진이 한반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진이 발생한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처치는 판구조동상 태평양판과 인도호주판의 경계 지점에 있으나 한반도는 유라시아판에 속해 있어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진과 화산은 판구조의 경계지점에서 많이 발생하

고 있다”며 “뉴질랜드는 연간 1만 4천여건의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이며 피해가 나는 규모 5.0 이상만 도 연 20회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니다. 기상청은 한반도와 인근 해역(영해)에서 지난해 발생한 지진은 모두 42회에 집계했다. 이 가운데 사람이 진동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규모 3.0 이상은 5회였다.

기상청은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는 아니지만 환태평양 연안에 있는 일본, 대만, 미국, 칠레 등에 비해서는 안정적인 상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교민 수송용 ‘특별전세기’ 띄운다

정부, 이집트 대피 방안 검토...철수 지원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는 리비아에서 우리 교민들의 철수가 22일 시작됐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이날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 4시께 리비아 벤가지 동쪽 토브룩 소재의 K중소기업 직원 9명이 자동차편으로 이집트를 향해 출발했고 오후 8시께 이집트 국경 지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주이집트 대사관측은 철수 중인 교민들과 휴대전화로 수시로 통화하면서 이동구간의 안전을 점검하는 한편

담당영사를 국경지역에 급파해 안전한 철수를 지원하고 있다.

철수 중인 기업 직원들은 일단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까지 이동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리비아에 있는 교민들을 전세기를 이용해 이집트로 대피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주이집트 대사관측은 이집트 항공측과 카이로-트리폴리간 전세기 운항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중동 불안 확산...국제유가 폭등

22일(현지시간) 국제유가는 리비아의 민주화 시위와 유혈진압 등이 격화되고 바레인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는 등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의 정정불안이 확산해 공급부족 우려 속에 폭등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지난 주말보다 7.21달러(8.6%) 오른 배럴당 93.57 달러에 거래를 마감, 2년 반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시장은 리비아 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달으면서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인 이 나라의 석유공급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예상이 번져 상승 폭이 커졌다.

리비아는 아프리카 최대의 석유 보유국으로 전세계 원유 생산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이미 일부 석유업체들은 리비아에서 직원들을 철수시키는 등 조업을 중단하고 있어 이집트 등 일부 국가에는 공급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장관이 OPEC 회원국들은 석유공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언제라도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지만 시장 안정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연합뉴스

“北 前보안서장 피살...곳곳서 공권력 저항”

이달 초 함경북도 청진에서 전직 보안서장 피살 사건이 발생하는 등 공권력에 저항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RFA)이 23일 보도했다.

RFA는 청진시 주민의 말을 인용, 이달 초 어두운 시간에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청진시 수남구역의 전 보안서장이 여러 괴한이 던진 돌에 맞아 숨졌으며, 이는 악명 높았던 전직 보안서장에 대한 복수극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주민 신고를 받고 피살사건 조사에 착수한 청진시 보안서는 교화소 출소자들을 사전 배후로 보고 내사를 진행 중이며, 보안서 직원들은 같은 병원을 당황하 두려워하는 분위기라고 이 주민은 전했다.

이처럼 북한에서는 최근 공권력 약화 조짐 속에 생계형 범죄나 저항 사례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RFA는 전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2월 16일)을 이틀 앞둔 지난 14일께 평

안북도 정주, 용천, 선천 등에서 주민 수십명이 전기와 물을 달라고 외치며 동시다발적으로 소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함경북도 연사군에서도 극심한 생활난에 시달리던 주민이 딸감을 모두 회수한 산림감독대의 감독원 3명을 살해했고, 양강도 해산시에서는 지구사령부로부터 출근하던 군관이 자전거를 빼앗기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대·소모임 가능한 500석 완비!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의 다양한 룸구성으로 쾌적하고 아늑하게 모시겠습니다.

평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토·일 공휴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15:30	25,000원	12,000원	8,000원	LUNCH	11:30~15:30	31,000원	18,000원	12,000원
DINNER	16:00~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DINNER	16:00~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062)671-1199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

식사전 **독소무** 1봉씩!

“배변이 힘들고 속이 더부룩하고 까스가 차고 소화가 안된다”

삼성제약 '독소무' 5일 섭취후, 99.9%몸의 변화 직접확인 가능!

장(腸)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다. 오늘날 장(腸)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사람의 장(腸)내에는 유익한 미생물이 많아 건강한 장, 튼튼한 장을 유지할 수 있다. 삼성제약 '독소무' 5일간만 드셔보면 '속' 편안함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배변이 속!! 까스도 속!! 요즘 '독소무' 덕분에 살 맛 납니다. 흔히 잘먹고, 잘싸고, 잘자면 비교적 건강하다고 말한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잦은 술자리, 불규칙한 식사때문에 설세없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요즘, 매일먹는 삼성제약 '독소무' 때문일까? 그렇게 더부룩하던 속이 막힘없이 후련할 줄이야! '독소무' 먹길 정말 잘했네!

삼성제약 독소무(장(腸)기능성 제품)로 식약청에서 인정하였습니다. (남·여 공용)

살기답, 까스명수, 우황청심원으로 알려진 삼성제약에서 우수한 기술력으로 만든 '독소무'는 우리몸에 유익한 이눌린, 현미호분총배이미강 등 49종류의 100% 자연천연원료로 인체시험을 통하여 식약청에서 공식 인정받은 제품으로 누구나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다.

“5일만에 끝낸다” 효과 없으면 ‘환불’ 해 드립니다.

삼성제약 '독소무'는 심여를 기울여 연구개발한 고급제품으로 5일간만 드셔보면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편안함을 직접 몸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확실한 효과 보장으로 5일간 드셔 보시고 효과가 없거나 불만족시 당일 즉시 100%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환불 보증서 발급, 택배비 회수 부담)

제품문의 : 1577-2326 (본사)

삼성제약공업주식회사 **독소무**